

이예원

효사랑 선교회

3/23/2019

## 내 가족의 자랑거리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이다.” H.G 웬스가 한 가족에 대한 명언이다. 힘들고 많은 경험을 해야할 우리들의 인생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미우면서도 사랑하게되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다. 가족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광범위하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내 가족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 가족은 총 4 명이다. 아빠, 엄마, 나, 그리고 1 분 차이나는 내 쌍둥이 언니다.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들보다 돈이 많거나 또 유명하지도 않다. 얼마 전, 여러 지병이 가지고 계신 우리 아빠는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고 엄마께서는 30 년 가까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중이시다. 나랑 내 언니는 특하면 감기에 허리, 목 디스크까지 와서 온 가족이 앓아 누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날마다 한번은 티격태격 의견이 안맞아 씩씩거리는 우리 가족에게도 자랑거리가 있다. 바로 가족이라는 존재 그 자체이다. 모든 사람마다 가족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남들보다도 못한 관계일수도,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허물없이 모든 모습과 이야기를 통해 배움을 얻고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름같은 존재이다. 이 말의 뜻은 그저 좋은 모습만 보고 배운다는 점이 아니라 내 가족의 단점과 나와 문제가 있었던 점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내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뜻도 포함된다. 가족도 작은 사회에 속한다. 이 작은 사회는 내가 나중에 마주칠 더 넓은 사회보다 어려울수도, 또 답답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사회에서 나는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묵묵하고 툭툭거리시면서도 뒤에서 챙겨주시는 우리 아빠, 깔끔과 청결을 지나치게 신경쓰는 엄마, 집에 간식과 음식을 혼자 거뜬히 거덜내는 언니, 덤벼대고 다혈질인 나. 부족하지만 유쾌한 네 사람이 모여서 같이 성장해가는게 가족이 아닐까 싶다.

사실, 우리 아빠는 앞에서 다정하고 살갑기보단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다. 무언가를 과시하지 않아도 겸손히 할 일을 하시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이다. 감정적이시기보단 이성적이셔서 내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주시는 편이다. 또 털털하셔서 지나간 일이나 사소한 문제는 웃어 넘기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사소한 일은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 모습을 많이 봐오고 배웠기 때문에 예전에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신경썼던 나는 지금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작은 문제들이나 안좋은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엄마는 다정한만큼 위로도, 격려도 많이 해주신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대학진로와 내 걸모습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때 신앙적으로도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다. 그때마다 엄마가 하시던 말씀은 내 중심이 세상것으로 세워지면 반드시 무너지고 사람에게 의지하면 힘들다는 말씀이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실 순 있지만, 자칫 그 위로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상처받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셨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비하하고 미워해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내 마음의 뿌리가 상처입지 않는다. 엄마와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알아가고, 또 배웠다. 몸은 남들보다 못하지만 지혜와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뒤쳐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 엄마는 내 자랑이자, 롤모델이다.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가 내게 내 롤모델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난 망설이지 않고 당연히 엄마라고 대답할 것이다.

중학교때까지 나랑 내 언니는 사이가 많이 안좋았다. 1분 빠르게 태어난 쌍둥이 언니는 어렸을때부터 나와 내 언니가 사람들에게 똑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그 똑같다는

말이 너무 싫었다. 쌍둥이라 비슷해도 둘이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둘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다. 둘을 하나로 취급하는게 싫어서 어렸을때부터 항상 모든지 다르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잠옷을 사도 언니가 핑크색 잠옷을 사면 나는 핑크색 잠옷을 사고 싶어도 다른 색을 골랐다. 이 불만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는 친구조차 따로 만들려고 했었다. 만나면 매일 싸우고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부터 부쩍 친해졌다. 나와 닮았기에 비슷한 사고와 생각이 맞아 재밌었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나이였기에 단짝친구같은 존재가 되었다. 남과 부모님께 쉽게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남들에게 받은 상처와 외로움을 내 언니가 채워주었다. 예전에는 쌍둥이가 부럽다는 친구들 말이 이해가 안갔는데 지금 보면 왜 그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될 것 같다. 같이 울고, 웃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내 가족이자 친구라면 더할나위없이 행복하고 감사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가족이라도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표현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가끔 오해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또 가족은 피로 이루어져 있는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낳아도, 마음으로 이어져 있어도 가족이라 생각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치고, 잘한 것은 축하하고 더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가족간에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랑하기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시는 채찍질이 이해가 안갈때가 있어도, 사소한 모든일을 다 알순 없어도, 다른 시간을 살아온 부모님과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아도 결국은 이어져있는 관계와 마음이 소중한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것을 바라며 모든것을 견디느니라.”(고린도전서 13:4-7)